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9. 30.(월) 12:00	 통계청
배포일시	2019. 9. 30.(월) 9:00	
담당부서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담당자	실장: 최 바 울(042-366-7301) 사무관: 박 시 내(042-366-7311)	

「KOSTAT 통계플러스」 2019년 가을호 발간

“이용자 친화적 통계분석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 통계개발원(SRI, 원장 전영일)에서는 경제·사회·인구 다양한 분야의 통계 분석 계간지인 「KOSTAT 통계플러스」 2019년 가을호를 발간한다. 특히 이번호는 빅 데이터와 표본조사 통계에 기반한 경제·사회·인구 정책수립에 기여하는 실용적인 연구결과를 제공한다.
- 주요 분석내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DP 변동성 축소”, “고령화와 노년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통신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한 수도권 근로자의 이동 현황” 등이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DP 변동성 축소’에서는 우리나라의 GDP 변동성 축소 경향과 원인, 국제비교 분석 및 대응전략을 논의한다.
 - ‘고령화와 노년의 경제·사회활동 참여’에서는 치매발생률, 고용률 등 국제비교, 고령층의 경제·사회활동 참여현황과 주관적 만족도를 분석한다.
 - ‘통신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한 수도권 근로자의 이동 현황’에서는 시도·시군구별 통근 현황, 출·퇴근 소요시간 및 근무시간 등을 분석한다.
- 본 간행물은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의 온라인간행물, 통계개발원(SRI) 홈페이지(<http://sri.kostat.go.kr>)의 「KOSTAT 통계플러스」에서 열람 가능하다.

※ 붙임. 「KOSTAT 통계플러스」 2019년 가을호 주요내용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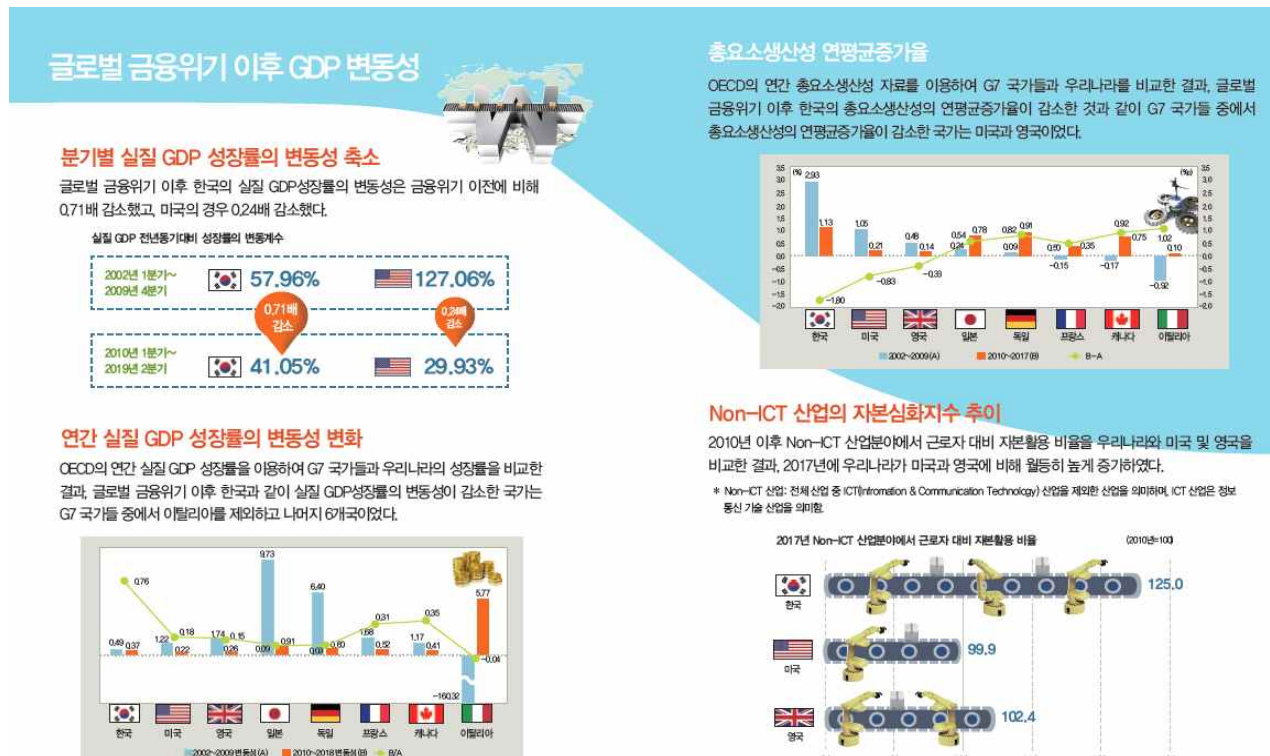
이슈분석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DP 변동성 축소

정규승, 통계개발원(SRI)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서기관

- 1980년대 중반에서 2001년까지 미국의 실질 GDP 변동성이 하락한 바 있었고, 최근 2010년부터 다시 같은 현상이 발생했는데, 전자와 후자의 성격이 상이하여 이와 관련한 논쟁이 분분하다. 통상적으로 GDP 변동성의 하락은 성장률만 유지된다면, 경제운영 효율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되지만, 경제의 역동성이 저하되면서 경제주체들의 위험회피성향을 반영할 수도 있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최근 실질 GDP 변동성 축소도 후자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우리나라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하락한 국가는 영국과 미국이다. 추가적으로 생산요소인 노동자 1인당 자본스톡 증감의 비율인 자본심화지수를 살펴보았는데, 특히 Non-ICT 산업에서 자본심화지수가 2017년에 차이가 나타났다. 미국은 2010년에 100이었던 자본심화지수가 오히려 99.9로 감소하였고, 영국은 102.4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125.0으로 25.0% 급증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노동감소(자본친화) 기술진보가 진행된 반면에 영국과 미국은 상대적으로 노동친화 기술진보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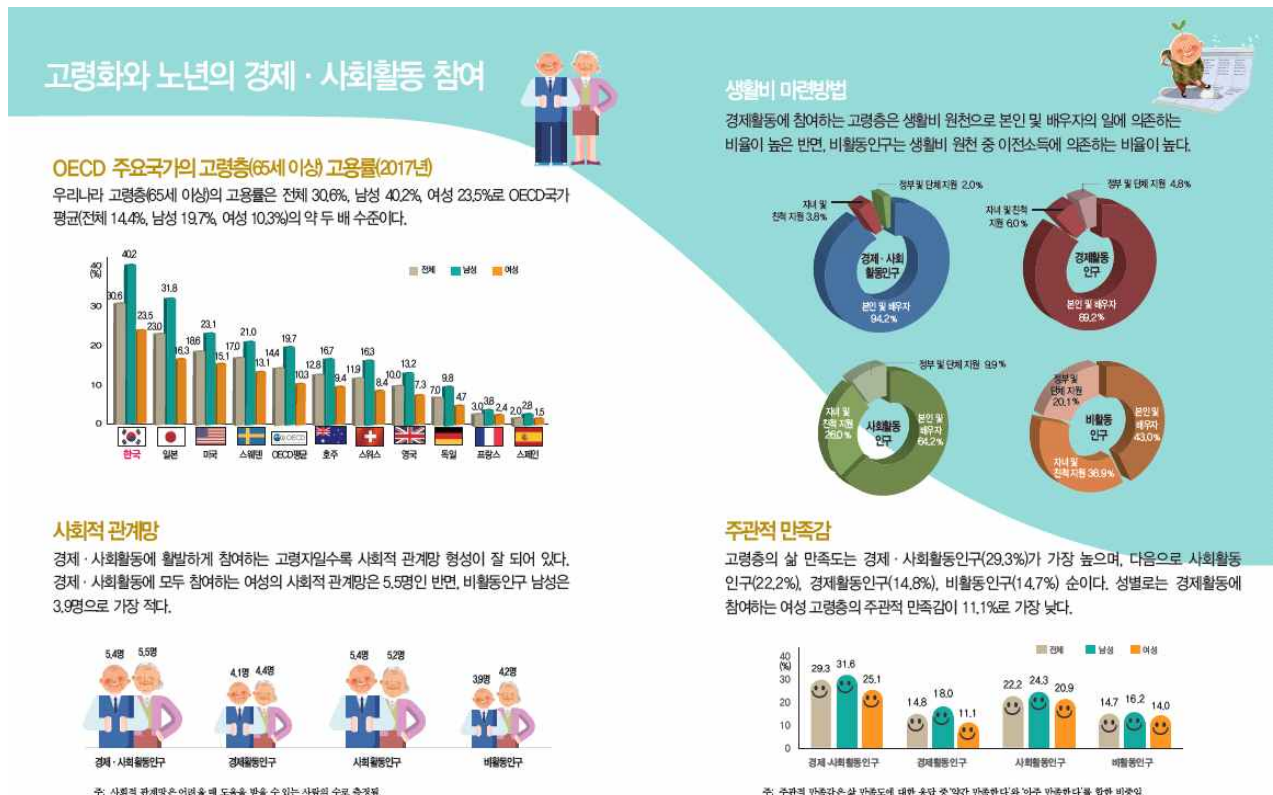
【 주요내용 인포그래픽 】



박시내, 통계개발원(SRI)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사무관

- 고령기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스스로 늙었다고 느끼는 평균 나이’는 60세로 이탈리아(70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세계 41개국 평균인 55세보다 5세 높다. 요즘의 고령층은 과거 세대에 비해 ‘젊은 노년’, ‘활기찬 노년’을 추구하며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인 1인가구의 증가,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 고독사(孤獨死), 우울증과 높은 자살률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듯 고령사회에는 명(明)과 암(暗)이 동시에 존재한다.
-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고령층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소득과 소비, 사회적 관계망, 계층의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제 및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고령층은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취약하며, 소득수준이 낮고 노후준비가 미비하다. 또한 이항 로짓 분석 결과 도시지역 전·월세 주택에 홀로 거주하는 균등화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의 고령 남성은 비활동인구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 주요내용 인포그래픽 】



강태경, 통계데이터허브국 빅데이터통계과 사무관

- 근로자의 이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근로자의 출·퇴근 소요시간 및 근무시간 정보를 설문조사를 통해 시의성있게 파악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2018년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4%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교통,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모바일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 이러한 배경 하에, 통계청은 2개 통신사(SKT, KT)의 수도권에 거주하는 개인 모바일 시그널 집계 정보를 활용하여 시도·시군구별 통근 현황, 출·퇴근 소요시간, 근무시간 등 근로자 이동을 시범 분석하였다.
- 분석결과 시도별로는 서울이 51분, 경기도가 45분, 인천이 46분으로 서울이 경기·인천보다 출·퇴근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별로는 남자가 48분, 여자는 47분으로 남녀 간 출·퇴근 시간 차이는 거의 없다. 연령별로는 수도권 전체로 보면 20대가 51분으로 가장 오래 걸리고, 50대는 43분으로 가장 적게 걸린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출·퇴근 시간이 짧아진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거주지를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옮기기 때문으로 보인다.

【 수도권 출·퇴근 소요시간 】



주: 2017년 11월 기준으로 휴대폰과 기지국이 교환하는 시그널 정보를 바탕으로 이동패턴이 일정(출근시간 06~10시, 퇴근시간 17시 이후이며, 일 근무시간 6시간 이상, 월 근무일수 10일 이상)한 25~55세 인구를 근로자로 간주하여 분석함.

※ 자세한 분석결과에는 책자 또는 통계개발원(SRI)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